

“차보다 사람이 먼저”... 광주 교통 확 바꾼다

시민이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도로 환경 조성
승용차 중심→지하철·버스·자전거 중심 개편

윤장현 시장당선자 인수위

민선 6기 광주시의 교통시스템이 대표적인 친환경 친시민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함께 버스, 자전거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중심의 도로 환경을 시민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22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민선 6기 시장 5대 목표 중 하나인 '안전한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등 교통시스템 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준비위는 일단 광주시 교통 관련 부서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당장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등) 실현할 수 있는 시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송인성 준비위원장은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의식 변화와 행정과 예산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임 후 단계적으로 논의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광주의 교통 체계를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완·첨단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밀집 지역의 시내버스 대란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지역의 인구는 38만명이 넘지만 버스노선은 37개로, 1개 노선을 이용하면 평균 인구 수는 1만명이 넘는 반면 구도심은 중복노선이 많고 1개 노선당 인

구는 2000명으로, 신·구 도심의 대중교통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대중교통 선진도시로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매년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노선 확대 등을 시도할 경우 늘어나게 될 재원확보가 첫 걸림돌이다. 시는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을 신설하는 대신 버스노선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이마저도 너무 더디게 진행되면서 노선 예정지역 시민의 불만이 높다.

여기에 민선 6기 준비위에서 지하철 2호선 개통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중교통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향상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영제 도입 후 8년동안 218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광주 시내버스의 친절도나 안전성 등은 여전히 미흡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시내버스로 출퇴근한다는 김대직씨(42·광산구 수완동)는 “선진도시처럼 지하철노선이 촘촘히 잘 돼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시내버스가 제대로 보완해준다면 많은 시민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땀 흘려서 30분 이상씩 기다려 버스를 타고, 출근시간도 1시간 가까이 걸리면 승용차 이용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캠’ 광주진료소 첫 진료 캄보디아 캄퐁스푸주에 문을 연 광주진료소의 첫 진료가 시작된 지난 20일 인근 주민들이 광주 의료진들의 진료를 받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최경원기자 cki@kwangju.co.kr

‘총기난사’ 탈영병 軍과 총격전

동부전선 GOP 임포 병장
병사 5명 사망·7명 부상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임포 병장은 22일 오후 우리 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23분께 강원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 북쪽에서 ‘GOP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 병장과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임 병장을 추격하던 소대장 1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어 헬기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전이 발생한 지점은 제진검문소 북쪽 300m, 명파리 소재 명파초등학교로부터는 북쪽으로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민통선 이북 지역이다. 21일 저녁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한 GOP 소초로부터는 10km 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임 병장은 전날 저녁 주간 경



계근무를 마치고 GOP로 돌아가던 중 수류탄을 던지고 동료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K-2 소총과 60여 발의 실탄을 소지한 채 무장 탈영했다.

군 당국은 무장 탈영 직후 해당 지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수색작전을 펼

친 끝에 이날 오후 2시17분께 숲 속에 은신한 임 병장을 발견했다. 총기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오는 9월 16일 전역을 앞둔 ‘B급’ 관심병사이다. A급 관심병사는 GOP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B, C급은 근무할 수 있다. 대학 1학년 재학 중인 2012년 12월 입대한 임 병장은 작년 2월 해당 부대로 배치된 후 같은 해 4월 실시된 인성검사에선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지만 11월 20일 검사에선 B급 판정을 받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국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Anniversary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쌀 시장 개방 사실상 공식화

농민 반발...국회처리 진통 예고

정부가 지난 20일 쌀 개방화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데다 국회 처리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쌀 개방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쌀에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 쌀값의 외국 쌀이 국내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특농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과 수입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등의 쌀 산업발전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관세화 즉 쌀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2015년 쌀 개방 여부를 정부의 협상 노력 여하에 달려있으며 정부가 WTO와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회도 쌀 개방에 찬반 의견이 맞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다음주 중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쌀 개방에 대한 입장과 쌀산업 발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BRASIL 2014
오늘의 월드컵 (23일·한국시간)
미국 G조 오전7시 포르투갈
내일의 월드컵 (24일·한국시간)
네덜란드 B조 오전1시 칠레
호주 B조 오전1시 스페인
크로아티아 A조 오전5시 멕시코
카메룬 A조 오전5시 브라질

문화전당 8월 첫 개방...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 개최

오는 8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신나는 월드뮤직 축제 현장으로 변신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22일 “제5회 광주월드뮤직 페스티벌을 오는 8월 29~30일 이틀간 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가 열리는 건 2005년 착공 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전당 공간 중 이번 페스티벌에 활용



되는 곳은 안전이 확보된 문화창조원 옥상 잔디 광장(사진)이다. 이곳을 메인 스테이지로 활용하는 등 전당 안에 모두 3개의 무대가 만들어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의 삶에는 산이 있습니까?
21번째 국립공원, 아무나 허락하지 않는 그 마지막 자리에
삶의 스키투어! 다른 96세대 명사들만을 모시겠습니다
산이 삶이 되는 곳 - 문동산 이스토리

223㎡ / 176㎡ (전용면적) 총 96세대 1566-7293

Street의 시래가 온다

2층부터 4층까지 계단없이 '길의 형태'로 이어지는 스트리트형 멀티테라 상가로 서울 인사동 샘지길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탄생하는 이색적인 건축물입니다.

총장로 이스토리 상가분양!

분양/임대 문의: 062)222-0288

40.3㎡ / 46.7㎡ / 66.0㎡ / 83.4㎡ / 96.9㎡ / 127.5㎡ / 139.7㎡